

 방송통신위원회		<h1>보도자료</h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29.(화) 12:00	배포 일시	2022. 11. 29.(화) 10:00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동석 (02-2110-1450)	
	지역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영란 (02-2110-1451)	

지역의 목소리 듣는 미디어교육 세미나 열린다
- 방통위, 미디어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학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의 현안과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미디어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11월 30일(수)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6일(화)에는 대전, 12월 13일(화)에는 경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체성 △청소년 사회참여와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엔데믹 시대, 한국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등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30일)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해운대구)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체성’을 주제로 부경대학교 이소은 교수, 김정환 교수, 중앙대학교 강진숙 교수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다. 좌장은 부산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화행 교수가 맡는다.

오는 12월 6일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유성구)에서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는 대전대학교 양선희 교수가 진행하며, 경성대학교 신명환 겸임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세미나는 12월 13일 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남양주)에서 ‘엔데믹 시대, 한국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인하대 하주용 교수가 진행하며 연세대학교 김용찬 교수, 서강대학교 김양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각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양적 성장이 이뤄져왔으며, 이제 이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미디어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교육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미디어교육 릴레이 세미나 포스터 1부. 끝.



새 정부 국정과제 59번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릴레이 세미나

1차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센터의 정체성

11월 30일 (수) 오후 2시 ~ 4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2차 청소년 사회참여와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12월 6일 (화) 오후 2시 ~ 4시 30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다목적홀 (대전 유영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3차 엔데믹 시대, 한국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12월 13일 (화) 오후 2시 ~ 4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 (경기도 남양주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오프라인 방청 및 유튜브 생중계

※ 사전접수 안내

릴레이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차별 포스터에
접수기간을 참조하시어 사전신청 QR코드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051-749-9558

2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042-865-3723

3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031-560-7222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시청자미디어재단